

『자매들』: 무의식의 의식화

김 상 호

I. 서론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의 『자매들』(“The Sisters”)은 주인공 소년이 신부의 죽음에 직면하여 그 죽음의 원인과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마비된 종교의 실체를 인식하는 성장소설에 속한다. 이 작품은 『더블린 사람들』(*Dubliners*)의 첫 번째 이야기로서 이 단편집의 주제를 함축적으로 제시하면서도 그 주제에 대한 불확정성으로 인해 다양한 해석을 양산해 왔다. 이 작품이 수많은 논쟁의 대상이 된 것은 신부의 육체적 마비의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정신적 마비의 실체 그리고 그 실체에 대한 소년의 인식에 대한 풀리지 않는 의문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이 작품은 소년으로 지칭되는 1인칭 시점으로 서술되지만, 소년의 관점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독자들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켜 왔다.

그러나 『자매들』의 처음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작품의 주제가 신부의 마비라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다. 작품의 내용이나 여러 비평가들의 관점을 전제하면, 신부의 마비는 그의 육체적 마비를 통해 제시되고, 그 육체적 마비는 정신적 마비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정신적 마비의 주요 원인은 성직매매 죄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신부의 육체적 마비는 객관적 사실을 통해 드러나지

만, 정신적 마비의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성직매매 죄의 실체는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평가들은 신부의 마비의 근거를 다양한 측면에서 추측하거나 추론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 작품의 주제인 신부의 마비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주로 신부의 마비를 성직매매 죄와 관련하여 설명하는 것이다. 성직매매 죄는 『사도행전』(“The Acts of the Apostle” 8:9-25)에서 볼 수 있듯이 “신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재능인 권능을 사고파는 행위”(Walzl 395)이며, 아퀴나스(Thomas Aquinas)에 따르면, “정신적인 것을 매매하려는 고의적 의지”(Beck 69)로 정의된다. 또한 성직매매 죄는 “성직, 면죄부, 이득의 고의적 매매”이며, “물질적 안위 혹은 이득을 위한 정신적 가치, 성령의 7가지 재능의 매매”(Gifford 30)를 의미한다. 가톨릭 백과사전(*The Catholic Encyclopedia*)에 따르면, 교황 그레고리(Pope Gregory the Great)는 성직매매를 “돈이나 다른 직접적인 물질적 이득, 추천이나 공개적인 지지로 인한 구두적인 이득, 경이, 아침, 혹은 과도한 봉사를 제공하는 일”(qtd. in Beck 69)로 정의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자매들』의 신부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능을 소년으로부터 존경과 복종을 이끌어 내고, 자신의 확실한 위안을 얻기 위해 이용하는 것은(Beck 70) “권능의 매매 행위”(Walzl 395)로서 성직매매 죄를 의미한다. 또한 신부는 소년이 사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큰 희망”(D 2)을 가지고 있는데, 신부가 그 대가로 소년으로부터 코담배를 선물로 받는 것은 “성직매매”(Gifford 30) 행위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리고 성직매매 죄는 신부가 신의 존재를 성배와 동일시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숭배와 헌신이 종교의 정신적인 측면으로부터 물질적 의식과 그 의식의 제의적 대상으로, 그리고 더블린 사람들의 물질주의로 전이된 것과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다(Peake 14).

비평가들은 신부의 마비를 성직매매 죄 이외의 다른 요소 즉, 신부의 신앙적 혹은 성격적 결함을 통해 설명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설명 중의 하나는 신부를 가학성 변태성욕(Walzl 398)을 지닌 매독환자(Waisbren & Walzl 758)와 동성애자(Brunsdale 11)라고 설명하는 것이다. 틴덜(William York Tindall)이 신부는 신부로서 “자신의 부적합성과 불완전함을 받아들일 수 없어 미쳐버렸다”(14)고 설명했듯이, 신부로서의 부적합성과 불완전함은 그의 마비의 한 형태가 될 수 있다. 신부의 의심스러운 신앙 즉, 신부가 고백성사의 권능을 의심하거나 불신하는 것을 그

의 마비의 한 양상으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Beck 70). 신부의 마비에 대한 또 다른 논의는 그의 “꿈꿈한”(D 9) 성격과 관련되어 있는데, 가톨릭 교회에서 꿈꿈함을 매우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마비의 정신질환으로 정의한다는 점에서, 신부의 꿈꿈한 성격은 그의 마비의 실제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Bremen 63).

「자매들」의 주제가 신부의 마비라 할 수 있고, 그러므로 이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주제인 마비의 실제 즉, 성직매매 죄의 실체와 그의 신앙적, 성격적 결합의 실체를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비평가들이 제시한 성직매매 죄의 실체가 신부의 육체적 마비를 유발할 정도로 심각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그의 마비의 원인을 신앙적, 성격적 결합 즉, 그의 변태성욕과 신부로서의 부적합성과 신앙의 불신, 그리고 꿈꿈한 성격 등으로 설명하는 관점도 독자가 작품을 읽으면서, 혹은 소년이 신부와의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작품의 내용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찾기도 어렵다. 이와 같이, 이 작품의 이해에 대한 관점은, 작품의 비평과 이해의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양상을 띠고 있다. 하여 마비의 실체에 대한 풀리지 않는 문제—이것은 작가의 의도일 가능성이 더 많다—에 집착하기보다, 마비의 실체를 아일랜드 역사를 통해 누적되어온 종교와 교회와 성직자의 마비에 대한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면서, 소년이 어떻게 마비라는 단어를 알게 되었고, 왜 신부와 관련하여 마비라는 단어를 연상하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작품을 이해하는데 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앞선다. 사실 지금까지 신부의 마비의 실체를 밝히려는 노력은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지만, 소년이 어떻게 마비라는 단어를 증언거리고, 왜 그 단어를 신부와 연결시키는가에 대한 의문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보인다.

그러므로 본고는 소년이 신부의 방을 쳐다보면서 “마비”(D 1)라는 단어를 증언거리리는 것은 신부의 마비에 대한 그의 무의식이 의식화되는 현상이라는 전제로부터 시작하면서, 신부의 마비에 대한 소년의 무의식의 형성과 표출, 무의식의 의식화 과정, 그리고 조이스가 이러한 과정을 소년의 꿈과 신부의 죽음에 대한 무의식적 반응을 통해 더욱 강조하고 있음을 살펴보고, 이러한 방법을 통해 신부의 마비를 드러내려 했던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이 작품을 이해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들 중의 하나로서 그 미궁 속에서 출구를 찾는 또 다른 하나의 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II. 왜 무의식인가?

『자매들』에서 소년은 신부의 육체적 마비를 언급하고 난 후, 신부가 살고 있는 집의 창문을 바라보면서 “마비”(D 1)라는 단어를 조용히 중얼거리고, 그 단어가 “경절형”(D 1)과 “성직매매 죄”(D 1)라는 단어처럼 이상하게 들린다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것이 어떤 사악하고 죄 많은 존재의 이름처럼 들린다고 말한 후 두려움을 느끼지만, 그 존재에 더 가까이 다가가 그것의 치명적인 위력을 파악하려는 욕망에 사로잡힌다.

매일 밤 나는 창문을 바라보면서 ‘마비’라는 단어를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 단어는 마치 유클리드의 기하학에 나오는 ‘경절형’이라는 말과 교리문답서에 나오는 ‘성직매매 죄’라는 말처럼 언제나 이상하게 들렸다. 그러나 그 단어는 이제 어떤 사악하고 죄 많은 존재의 이름처럼 들렸다. 그 단어를 생각하며 두려움을 느꼈지만, 나는 그 ‘마비’라는 존재에 더 가까이 다가가 그것의 치명적인 작용을 들여다보고 싶었다. (D 1)

이처럼, 소년은 육체적으로 마비된 신부를 생각하며 마비라는 단어를 중얼거리고 그의 정신적 마비를 연상하게 된다. 소년이 단순하게 이해하고 지나쳐 버릴 수도 있는 신부의 육체적 마비를 통해 마비라는 단어를 중얼거리고, 이를 경절형과 성직매매 죄라는 단어와 연관시키면서 그의 정신적 마비를 연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소년이 이미 신부의 마비를 알고 있다는 것인가? 작품의 내용으로 판단해 볼 때, 소년이 신부의 마비를 이미 알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는 어렵다. 작품의 처음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소년은, 의식적인 측면에서, 마비라는 단어를 알고 있지 않으며, 신부를 만난 후 그에게서 의식적으로 마비의 징후를 감지하는 것도 아니며, 신부의 마비에 대한 아무런 외부적 사건이나 충격을 경험한 바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년은 어떻게 마비라는 단어를 중얼거리고 이 단어를 신부와 연결시키는 것인가?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것은 신부의 마비에 대한 소년의 무의식이 의식화되는 현상 때문이라고 전제할 수 있다.

이러한 전제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그 근거를 찾기 위해 먼저 어린 소년이 마비와 경절형 그리고 성직매매 죄라는 어렵고 생소한 단어를 알게 된

경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서술자인 소년은 경절형이라는 단어가 유클리드의 기하학(the Euclid)에 나오는 단어이고, 성적매매 죄라는 단어는 교리문답서(the Catechism)에 나오는 단어라고 말함으로써 그가 이미 그 두 단어의 의미를 어렵듯이 알고 있음을 암시한다. 기포드(Don Gifford)의 해석은 소년이 당시 가톨릭 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수업시간에 이미 그 두 단어의 의미를 배운 바 있음을 나타낸다(29). 이와는 달리, 소년은 마비라는 단어와 그 의미를 알게 된 계기나 출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그 단어는 소년이 학교에서 배운 바도 없고, 어감이 “이상하게 들리는”(D 1), 그리고 “일반적 어휘와 거리가 먼 혼치않은 어휘”(홍덕선 9)이기 때문이다. 소년은 단지 마비라는 단어가 막연히 어떤 단어와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느끼고, 그 후 그 단어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유추하지만, 그것이 “어떤 사악하고 죄 많은 존재의 이름처럼 들렸다”(D 1)고 인식할 뿐이다. 이것은 그가 마비라는 단어를 중얼거리지만, 의식적인 측면에서 마비라는 단어 그 자체, 혹은 그 단어의 의미를 모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는 마비라는 단어와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 단어를 중얼거리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소년이 마비라는 단어를 중얼거리는 원인이나 단서를 작품의 이야기와 소년의 의식적인 영역에서 찾는 것은 실상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소년은 어떻게 마비라는 단어를 중얼거리게 된 것일까? 그 원인을 그의 의식적 영역에서 찾을 수 없으므로, 그의 무의식적 영역에서 그 원인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무의식 속에 신부의 마비에 대한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소년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신부를 생각하며 그 의미도 모르는 마비라는 단어를 중얼거리고, 또 신부를 마비라는 단어와 연결시킬 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소년의 무의식적 기억과 관념은 소년이 마비라는 단어를 연상하는 근원이 되고, 작품의 주제 즉, 신부의 마비를 표현하는 근원이 된다고 전제할 수 있다.

이러한 전제의 근거를 찾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신부의 마비가 시작된 시점을 추적해 보는 것이다.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비평가들은 신부의 마비 증상을 여러 측면에서 설명하였는데, 이러한 증상들은 신부와 소년의 관계에서 유발된 것일 수도 있고, 그들의 관계 이전에 이미 시작된 것일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가 사실이라면, 소년이 마비라는 단어를 중얼거리는 원인을 굳이 그의 무의식에서

찾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는 두 가지의 이유 때문에 충분한 설득력을 지니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첫째, 소년이 신부를 만난 이후 마비라는 단어를 중얼거리는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그가 신부의 정신적인 마비 증상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바가 없기 때문에, 마비라는 단어를 중얼거리는 원인을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찾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설령, 소년이 신부를 만나는 과정에서 신부의 마비증상이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소년이 미처 그것을 간파하지 못했다면, 소년이 신부의 육체적 마비를 보고 그의 정신적 마비를 연상하는 것 역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둘째, 비평가들이 지적한 신부의 정신적인 마비의 증상들은 신부의 육체적 마비를 유발할 정도로 심각한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고, 게다가 어린 소년이 평소 신부를 정신적 아버지로 여기며 존경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지도 않은 현상들을 보고 신부의 마비를 인식하는 것은 더욱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소년과 신부의 관계 속에서 소년이 마비라는 단어를 알게 되고 또 그 단어를 중얼거리게 되는 근거를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것은 소년이 신부와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마비 증상을 인식할 수 있는 근거가 작품에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작품의 내용을 추론해 보면, 신부의 마비는 소년이 신부를 만나기 이전에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신부가 이미 세 번째 졸도했고, 그 졸도의 원인이 정신적 마비라고 가정하면, 그 정신적 마비가 육체적 마비를 유발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소년이 신부를 만나 세 번이나 그의 졸도를 목격했다면 신부의 마비는 이미 소년이 신부를 만나기 훨씬 이전부터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신부의 누이인 일라이자(Eliza)가 “성배를 깨뜨린 일 때문에 오라버니가 이상해 졌어요”(D 9-10)라고 말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성배를 깨뜨린 사건은 신부가 성직을 수행하던 시기에 일어났고, 소년이 신부를 만난 것은 그가 은퇴한 이후라고 가정하면, 신부의 마비는 소년이 신부를 만나기 이전에 시작되었던 것이다. 게다가 신부가 성배를 깨뜨린 일에 집착하고 죄책감을 느껴 일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물신숭배의 결과로서 신부의 왜곡된 신앙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성배를 깨뜨린 사건은 소년이 신부를 만나기 이전에 일어났으므로, 그의 왜곡된 신앙은 성배를 깨뜨린 사건 이전에 이미 시작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신부의 마비는 소년이 신부를 만나기 이전에 이미 시작된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는 것이다.

소년이 신부를 만나기 이전에 이미 신부가 마비되었고, 현재 소년이 신부를 만나면서 그에게서 마비의 실체를 의식적인 차원에서 목격하거나 인식하지 못했다면, 소년은 어떻게 신부를 생각하며 마비라는 단어를 떠올리고 신부와 마비를 연결시키는 것인가? 작품의 내용과 소년의 의식적인 차원에서 그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역시 그의 무의식에서 그 근거를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소년이 신부를 만나기 이전에 해당하는 신부의 과거는 작품에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은 신부의 마비된 역사를 반영하는 영역이라 할 수 있고, 신부의 과거가 투영되어 나타날 수 있는 소년의 무의식은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고는 소년이 마비라는 단어를 중얼거리는 것은 신부의 마비에 대한 그의 무의식이 의식화 되는 현상이라는 전제로부터 시작한 것이다.

III. 무의식의 형성과 표출

신부의 마비에 대한 소년의 무의식은 언제 어떻게 형성된 것인가? 어린 시절의 경험은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할 수는 없지만 무의식의 영역에 잠재되어 있듯이, 소년에게도 그의 유년시절의 경험이 무의식의 영역에 존재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물론 유년시절은 소년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떤 정보를 듣게 되지만, 그것들을 의식하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기간이라 할 수 있다. 소년이 신부의 마비를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기간 동안 소년은 가족과 주변 사람들로 부터 신부의 마비에 대한 이야기를 수없이 반복하여 들었을 것이고, 이러한 이야기의 내용은 그의 무의식적 영역의 일부를 형성하게 되었을 것이다. 아일랜드의 전통적인 종교는 가톨릭이며, 그 가톨릭 종교는 역사를 통해 심각할 정도로 마비된 양상을 보여주었고, 어른들은 그러한 종교의 마비에 대해 이야기했을 것이며, 소년은 유아기부터 성장과정을 통해 어른들이 종교와 신부의 마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고, 이러한 이야기의 내용은 “잊혀지고 억눌리고 억압된 잠재의식으로 지각되는”(Jacobi 10) 그의 무의식을 형성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소년의 무의식은 적절한 시점에서 의식의 영역으로 표출된다. 프로이트(Sigmund Freud)는 무의식의 두 가지 성질을 ‘전의식’(the preconscious)

과 ‘본래의 무의식’(the unconscious proper)으로 구별하면서, 전의식적인 관념이나 기억은 저항이 약하기 때문에 매우 쉽게 의식화 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무의식에는 많은 단계가 있는데, 의식화 될 수 없는 기억이 있고, 말로 표현할 수 있을 듯한 기억이 있다고 설명한다(Hall 57).¹⁾ 이처럼 소년의 전의식적인 관념이나 기억은 쉽게 의식화 될 수 있거나 말로 표현될 수 있을 듯한 영역에 속한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기억이나 관념이 의식화되기 위해서는 이것들이 반드시 언어와 연계되어야 한다. 만약 우리가 생각하고 있거나 기억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보았거나 들은 적이 있는 단어와 연관되지 않으면, 우리는 생각할 수도 기억할 수도 없다”(Hall 56). 이처럼 소년의 전의식적인 기억과 관념 즉, 무의식은 마비라는 말을 통해 의식화 된다고 할 수 있다. 소년의 무의식적인 기억과 관념 속에 존재하던 마비의 막연한 개념이 마비라는 단어와 연관되어 기억되고 서술되는 것이다. 이처럼 신부의 마비에 대한 소년의 기억과 관념이 말로 표현할 수 있을 듯한 상태에 있고, 결국 이는 말을 통해 의식의 표면으로 드러난다. 마비라는 단어를 연상하는 것은 소년의 전의식적인 기억이나 관념이 언어와 연계되어 의식화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소년의 무의식적 영역에 속해 있던 그 단어가 어떤 상황에서 점차 의식의 영역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소년이 중얼거리는 마비라는 언어는 바로 소년의 무의식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소년의 무의식이 언어를 통해 표현됨으로써 그 무의식이 의식화 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라캉(Jacques Lacan)은 “무의식은 주체가 자신도 전혀 모르는 사실들에 대해 말할 때 드러난다”(Lemaire 188 재인용)고 설명한다. 이것은 “무의식은 알고 있는 바를 말하지만, 주체는 이를 알지 못한다”(사립 147)는 것이다. 소년은 의미도 알 수 없는 단어를 중얼거리게 되는데, 이 때 그의 무의식은 자신도 알 수 없는 단어를 통해 표현되는 것이다. 즉, 소년은 무의식 혹은 전의식을 통해 자신도 모르게 마비라는 단어를 떠올리지만, 그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는 마비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서 그 단어가 경질형이나 성직매매 죄라는 단어처럼 이상하게 들린다고 느끼고, 또 마비가 “어떤 해롭고 죄 많은 존재의 이름처럼 들리는 것”(D

1) 프로이트는 무의식을 전의식과 본래의 무의식으로 구별하는데, 본고가 의도하는 개념은 전의식을 말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라캉이 사용한 무의식과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야기되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 전의식과 본래의 무의식을 구분하지 않고 이 두 개념을 포괄하는 무의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1)을 통해 그 단어의 의미를 어렵듯이 파악할 뿐이다.

또한 라캉이 “인간의 진정한 욕망은 무의식 속에서 찾아야 한다고 시사”(Lemaire 170)했듯이, 소년의 욕망은 그의 무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소년은 마비라는 말을 연상하고 그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지만 “그 마비에 더 가까이 다가가 그것의 치명적인 위력을 파악하고자 하는 욕망”(D 1)에 사로잡힌다. 이것은 신부의 실체, 신부의 마비, 그 마비의 원인과 영향 등을 파악하고자 하는 소년의 욕망을 말한다. 소년이 마비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그 실체가 사악한 것이기 때문이고, 그 실체와 위력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을 파악함으로써 그 실체를 인식하고 그 대상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의 무의식적 욕망에 따른 것이다. 이와 같이 소년이 마비라는 단어를 중얼거리게 된 것과 그 마비의 치명적인 위력을 들여다 보고 싶은 욕망을 지니게 되는 것은 그의 무의식이 의식의 영역으로 표출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소년의 무의식은 아무런 자극도 없이 자연스럽게 의식의 영역으로 표출되는 것인가? 그의 무의식이 의식의 영역으로 표출되기 위해서는 그 무의식을 자극하는 요소가 존재해야 할 것이다. 무의식적 기억과 관념은 외부의 충격과 자극을 통해 의식의 영역으로 표출되기 때문이다. 소년의 의식적 지각과 감정은 그의 무의식의 의식화를 자극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작품에서 이러한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소년이 마비라는 단어를 중얼거리기 이전에 경험하는 육체적으로 마비된 신부의 모습과 행동이라 할 수 있다. 소년의 무의식이 의식화되는 과정에서 현재나 가까운 과거의 의식적 지각과 감정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것은 과거의 무의식적인 기억이 의식화되고 그 주체의 근원적 소망이 의식화 될 때 최근에 일어난 사건이 이용되기 때문이다(Lemaire 140-41). 소년이 신부에 대해 느끼는 지각과 감정은 의식적인 측면에서 소년과 신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직접적 경험에서 나온 것이며, 이러한 요소들은 소년의 무의식 속에 내재하고 있는 어떤 내용이 의식화 되는 과정을 촉진하는 자극제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소년은 신부를 만났 이후 그의 이상한 모습과 행동을 통해 그의 마비와 성적매매 죄를 무의식적으로 직감했다고 할 수 있다. 소년의 무의식 속에는 마비라는 개념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소년은 육체적으로 마비된 신부의 모습을 통해 그의 마비를 직감하고, 마비라는 말을 중얼거리게 된다. 이것은

소년의 무의식이 외부 환경의 자극을 받아 의식의 영역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의식적인 차원에서 관찰되었던 신부의 이상한 모습과 행동은 소년이 마비라는 단어를 신부와 연관시킴으로써 신부의 마비에 대한 무의식이 의식화되도록 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소년이 마비라는 단어를 중얼거리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소년이 의식적으로 보았거나 경험했던 육체적으로 마비된 신부의 모습과 행동은 소년의 무의식의 의식화를 자극하는 요소가 된다.

반면에, 소년이 마비라는 단어를 중얼거리고 난 후에 서술되고 진행되는 신부의 죽은 모습과 어른들의 대화와 일라이자의 설명은 소년의 무의식의 의식화를 자극한다기보다, 무의식이 의식화 된 이후에 나타나는 소년의 불확실한 의식을 좀 더 구체화하거나 그것의 치명적인 실체를 파악하려는 욕망을 자극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소년은 죽은 신부가 미소 짓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가 미소를 짓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소년이 신부가 미소 짓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가 신부를 신뢰한다는 의식적 확신을 나타낸다. 반면에 신부가 미소를 짓고 있지 않았다는 것은 소년이 자신의 무의식적 반응을 더욱 확신하도록 하는 요인이 된다. 자신이 지금까지 지니고 있었던 신부에 대한 의식은 신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었으나, 그의 존재에 대해 다소 혼란스러움을 느끼는 과정에서 표현되는 신부에 대한 분명치 않은 반발이나 불신은 육체적으로 마비된 신부의 모습을 통해 좀 더 구체화 된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관점을 고려해 보면, 코터(Cotter)노인은 성인의 입장에서 신부의 마비된 행적을 목격했거나 그 행적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수도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통해 신부의 성직매매 죄를 확신하거나 추측했을 것이다. 노인은 신부의 마비에 관한 정보를 어린 소년에게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성격을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어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소년은 이미 마비라는 단어가 무의식적으로 표출된 상황에서 그 노인이 한 말의 의미를 이해함으로써 마비의 실체를 파악하고자 애를 쓴다. 그 결과 소년의 직관과 코터노인이 한 말의 의미를 파악하려는 소년의 노력이 융합됨으로써 신부의 마비에 대한 소년의 불확실한 의식이 좀 더 구체화 되고, 이는 내외부적 환경의 자극을 받아 점차 확신으로 바뀌게 된다. 이처럼 자신도 모르게 표출되었던 신부의 마비에 대한 개념은 소년의 지각과 감정, 경험과 주변 사람들의 담론이나 반응에 대한 경험을 통해 점차 구체화된다. 이러한 요소들은 소년의 무의식적 반응을 좀 더 구체화시키거나 마비의 실

체를 구체적으로 인식하려는 소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소년은 불명확한 의식의 경계에 도달하기 위해 주변의 정보를 해석하여 의식화 과정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무의식 즉, 전의식에 존재하던 마비라는 개념이 마비라는 단어를 통해 의식화 되지만, 소년은 마비의 실체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소년은 그 마비의 실체를 파악하고자 하며, 또한 신부에 대해 이야기하는 코터노인의 말의 의미를 파악하려는 의식적 욕망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어른들의 이야기와 죽은 신부의 모습은 소년의 무의식이 의식화 된 후 불확실한 상태에 머물렀던 그의 의식이 확신에 이르도록 자극하거나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소년의 무의식이 형성된 후, 주변 환경의 영향으로 그 무의식이 흐릿하게 의식화 되고, 불명확한 의식이 좀 더 구체화 된 상황에서, 조이스는 그 무의식이 의식화 되는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소년의 무의식이 의식화 되는 현상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그것은 소년이 코터노인의 끝내지 않은 말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머리를 짜내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꾸는 꿈과, 신부의 죽음을 생각하며 거리를 방황할 때 드러나는 그의 감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먼저 소년의 무의식이 꿈을 통해 표현되고 있음을 살펴보자.

깜깜한 방에서 나는 그 중풍환자의 침울한 회색빛 얼굴을 다시 보는 듯한 상상에 빠져들었다. 나는 머리까지 담요를 뒤집어쓰고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그 회색 빛 얼굴은 계속해서 나를 따라왔다. 그것은 뭔가를 중얼거렸는데, 나는 그것이 뭔가를 고백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내 영혼이 어떤 즐겁고 사악한 지역으로 물러나는 것을 느꼈고, 거기에서 그것이 또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았다. 그 얼굴은 중얼거리는 목소리로 나에게 고백하기 시작했는데, 나는 그 얼굴이 왜 계속해서 미소를 짓는지, 그 입술은 왜 그렇게 침으로 젖어 있는지 궁금했다. 하지만 그 때 나는 그 얼굴이 마비로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성직매매자의 죄를 사면해 주기라도 하듯 희미하게 웃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D 3)

꿈은 주로 신부가 성직매매자라는 내용과 분위기로 구성되어 있다. 신부는 마비환자와 성직매매자로 지칭될 뿐만 아니라, 성직매매 죄를 지은 것으로 묘사되며, 소년은 신부를 “병적이고 두려운 존재”(Corrington 19)로 인식하는 것처럼 보인다. 마비환자가 뭔가를 고백하기 위해 소년을 따라가는 것은 그에게 분명히 고백해야

할 죄가 있음을 나타낸다. 소년이 이러한 신부에게서 도피하는 것은 꿈에서 신부의 역할을 수행하는 소년이 그 마비환자의 죄를 사면해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마비환자의 죄가 사면의 대상이 될 수 없을 정도로 사악하고 심각한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결국 소년은 마지못해 하면서도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그의 죄를 사면해 주는 듯하다. 소년이 신부와 자신의 관계 때문에 그의 죄를 사면해 주기는 하지만, 그는 결국 그의 죄를 “조롱하는 듯한”(Wohlpart 412) 미소를 짓는다. 뿐만 아니라 고백성사라는 엄숙한 순간에도 계속해서 웃고 있는 회색빛 얼굴과 침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는 그의 입술은 신부가 웬지 정신적으로 마비되어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풍긴다. 이처럼 꿈의 내용과 분위기는 신부의 마비 혹은 성직매매 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또한 꿈의 분위기 역시 “더블린의 종교가 일종의 신비하고 마술적인 의식이라는 소년의 내면적 인식을 반영”(Peake 15)함으로써 더블린의 종교가 마비되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프로이트가 꿈은 본질적으로 무의식적 소망의 상징적 성취라고 설명했듯이 (Eagleton 157), 이러한 소년의 꿈은 신부가 성직매매 죄를 지었다는 그의 무의식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꿈의 원재료는 무의식적 소망, 잠들어 있는 동안의 육체적 자극, 전날의 경험이 축적된 이미지들이다(Eagleton 180). 그러므로 소년의 꿈은 신부의 마비와 그 마비에 대한 실체를 규명하려는 무의식적 소망과 전날 코터노인과의 대화, 그리고 최근 신부를 만나면서 경험했던 일들이 축적된 이미지라 할 수 있다. 먼저 소년의 무의식적 소망은 작품의 처음부분에서 제시되었듯이, 소년이 신부의 마비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그것의 치명적인 작용을 확인하려는 것에서 드러난다. 마비의 실체를 파악하고자 하는 그의 무의식적 소망은 그가 “코터노인이 하다면 이야기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머리를 짜내는”(D 3) 좀 더 강렬한 의식적 욕망으로 발전한다. 이러한 의식적이고 무의식적인 욕망은 꿈의 형태로 제시되는데, 특히 코터노인의 끝맺지 않은 말의 의미를 파악하려는 욕망은 꿈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다. 브레먼(Brian A. Bremen)은 소년의 꿈을 코터노인의 말에 대한 소년의 무의식적 이해로 읽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59). 기호를 해석하려는 소년의 욕망은 꿈의 계기가 되는 것이다. 코터노인의 끝나지 않은 말의 의미를 파악하려는 욕망을 프로이트가 말한 전날의 경험이라고 한다면, 마비라는 단어가 무의식에서 의식화 되는 과정에서 소년이 목격하게 되는 신부의 이상한 모습과 행동 역시 전날의 경험에 해당하는 것으로 꿈의 원천이 된다고 할 수 있

다. 꿈은 소년의 무의식뿐만 아니라 의식의 표현이지만, 그 꿈의 최초의 원천은 소년의 무의식적 소망이라 할 수 있다. 소년의 소망은 꿈을 통해 표현되고, 이 꿈은 신부가 마비된 존재라는 그의 무의식을 반영한다. 이처럼 꿈은 “마지막으로 소년이 신부의 부패한 행위의 심도를 통찰하도록 하는 그의 무의식으로부터 솟아나는 확실한 증거”(Brunsdales 12)가 되는 것이다.

조이스는, 꿈을 통해 그렇게 했듯이, 소년이 무심코 느끼는 감정을 통해 신부의 마비에 대한 그의 무의식을 표현하고 있다. 신부의 마비에 대한 소년의 무의식적 반응은 소년이 상가를 방문하여 죽은 신부의 모습을 보고 싶었으나, 문을 두드릴 용기가 나지 않아 그것을 포기하고 길거리를 배회하는 상황에서 잘 드러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작품은 소년이 마비라는 단어의 의미와 그것의 치명적인 위력, 그리고 코터노인이 한 말의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년은 자신이 지니고 있는 무의식적 반응에도 상당한 관심을 지니고 있다. 코터노인이 신부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야기 할 때, 소년은 상당히 불쾌해하며 자신의 의식적 판단을 옹호하지만, 그 후 소년은 신부의 마비 혹은 죽음에 대한 자신의 무의식적 반응에 매우 당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년은 자신의 무의식적 반응의 의미를 파악함으로써 신부에 대한 자신의 감정과 신부의 마비를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다음 인용에서 소년의 의식적, 무의식적 반응을 살펴볼 수 있다.

나도 그렇고 날씨도 그렇고 슬퍼하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 이상한 기분이 들었고, 마치 신부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무언가로부터 벗어난 듯한 해방감을 마음속으로 느끼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는 화가 나기까지 했다고 느꼈다. (D 4)

소년은 자신이 평소에 존경하던 신부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그렇고 날씨도 그렇고 신부의 죽음을 애도하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 이상한 감정을 느끼고, 하물며 내심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무언가로부터 벗어난 듯한 해방감을 느끼지만, 그러한 사실을 의식하고 자신에게 화를 낸다. 이 상황에서 소년의 무의식과 의식이 동시에 표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신이 정신적 아버지와 스승으로 여겨온 신부가 죽었으므로 소년이 신부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그의 죽음에 직면하여 슬픈 감정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

이다. 그러나 소년은 신부의 죽음에 관한 소식을 듣고 자신도 모르게 슬픈 감정을 느끼지 않으며, 또한 무언가로부터 벗어난 듯한 해방감을 느끼기도 한다. 그러면 서도, 그는 자신의 이러한 감정에 대해 이상하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신에 대해 화를 내는 상반된 모습을 보여준다. 소년이 신부에 대해 느끼는 애도하는 분위기가 아닌 것과 해방감은 그의 무의식의 표현이고, 이 무의식에 대해 그는 이상함과 노여움을 느끼는데, 이것은 그의 의식적이고 이성적인 감정의 표현이다. 소년이 자신도 모르게 느끼는 감정이지만, 그의 무의식적 감정은, 그가 신부의 방을 바라보면서 은연중에 마비라는 단어를 중얼거리는 것과 같이, 신부의 마비에 대한 소년의 무의식이 의식화 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의 무의식이 점차 의식화 되는 것은 그의 신부에 대한 알 수 없는 감정이 마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소년의 꿈과 감정은 무의식의 의식화 과정을 보여주는 실례라고 할 수 있으며, 조이스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신부의 마비에 대한 소년의 무의식이 의식화 되는 과정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이다.

IV. 무의식의 의식화: 종교적 마비의 표현 수단

조이스가 『자매들』에서 종교의 마비된 모습을 그 주제로 제시했듯이, 사실 아일랜드의 역사를 통해 종교와 교회는 국가와 민족의 독립과 국민들의 삶에 부정적인 요소로 존재해 왔다. 아일랜드는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과 “800여년”(CW 161)에 걸친 영국의 식민지배를 받아, 국토는 피폐되었고 국민들은 도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역사의 질곡 속에서 종교는 아일랜드 사람들에게 영국의 식민지배로 인해 지칠 대로 지친 자신들의 영혼을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러나 종교는 그들의 신앙을 배신하고, 아일랜드 사람들의 독립운동을 외면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단한 국민들의 삶을 더욱 피곤하게 하는 주체가 되었던 것이다. 조이스는 아일랜드 역사를 통해 성스럽고 권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종교가 종교 그 자체의 본질을 망각하고 국민들의 궁핍한 삶을 외면했던 현실을 직시하고 이러한 현상을 자신의 작품을 통해 신랄하게 비판하고자 했던 것이다.

조이스가 비판하고자 했던 종교의 적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로마 가톨릭 교회가 신앙의 본질을 외면하고 수세기 동안 보여준 아일랜드인들의 충성을 배신하였다는 사실이다. 아일랜드는 기독교화된 후 6-7세기 동안 선교사업을 위해 세계 각국으로, 특히 영국과 유럽대륙으로 자국의 선교사들을 파견하여 그들의 개종을 주도하였다(CW 169).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영국인 교황 아드리안 4세(Pope Adrian IV, 1154-59)가 영국왕 헨리 2세(Henry II)에게 교서를 내려 영국의 아일랜드 정복을 승인함으로써, 가톨릭 교회는 영국을 교화시켰고 교회에 충성을 바쳐온 아일랜드가 800여 년 동안 영국의 식민지배하에서 그들의 폭정에 신음하도록 하는 빌미를 제공했던 것이다. 조이스는 “교황청은 독특한 방법으로 그들의 충성에 보답했다”(CW 170)고 비판했다.

둘째, 아일랜드 교회는 합병과 파넬(Charles Stewart Parnell)의 몰락에 간여함으로써 조국과 민족의 장래를 암담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식민지배하에서 지칠 대로 지친 신도들의 삶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영국의 침략과 지배가 거세지면서 아일랜드는 끊임없이 조국의 독립을 위한 저항운동을 전개하였지만, 아일랜드 교회는 가톨릭 해방(Catholic Emancipation)이라는 미기에 현혹되어 통합법안(The Act of Union)을 지지하고(Gifford 19), 그 이후 도덕주의를 앞세워 민족해방운동의 지도자였던 파넬의 몰락에 앞장섬으로써 민족의 독립을 요원하게 만들어 버렸다. 또한 아일랜드 교회는 영국의 지배와 수탈에 지친 국민들에게 정신적, 육체적 평안과 위안을 제공하고 그들의 궁핍한 삶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종교의 본질을 외면한 채 민족과 국가의 존재를 망각하고 자신들의 권위를 유지하고 교회의 외적 성장에 주력함으로써 위선적이고 탐욕적인 행태를 보여주었다.

스티븐(Stephen Dedalus)은 『스티븐 히어로』(Stephen Hero)에서 “영국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로마 가톨릭 교회가 아일랜드 사람들을 지배했다”(SH 53)고 말함으로써 종교가 그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배했음을 지적한다. 또한 스티븐은 『율리시스』(Ulysses)에서 “나는 두 주인을 섬기는 종이야, 영국인과 이탈리아인 말이야”(U 1.638)라고 말함으로써 종교가 아일랜드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조이스가 1906년 11월 동생 스타니슬로스(Stanislaus)에게 보낸 편지에서, 아드리안 4세 시대와 마찬가지로 교회는 아직도 아일랜드의 적인 것 같다(SL 125)라고 언급한 것은 조이스의 종교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말하는 것이다. “로마의 폭정이 영혼의 궁전을 점령하고 있는데 영국의 폭정을 맹렬히 비난하는 일은 별

소용이 없다”(CW 173)고 한 조이스의 고백은 아일랜드에서 가톨릭 교회의 폭정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였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처럼 아일랜드 사람들은 “신부에게 시달리고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종족”(P 37)으로 존재해 왔다.

이러한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던 조이스가 그의 작품에서 종교의 마비된 모습을 비판적으로 제시하고, 그의 모든 작품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자매들』에서 종교의 마비를 그 주제로 선택했던 것은 아마도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특히 『자매들』에서 조이스는 이러한 종교와 교회와 성직자의 마비된 모습을 소년의 무의식이 의식화 되는 과정을 통해 표현함으로써 그 마비의 심각성을 더욱 강조하고자 했던 것이다. 종교와 교회는 아일랜드 역사와 종교의 역사를 통해 끊임없이 마비된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러한 마비는 역사를 통해, 어린 아이들의 성장과정을 통해, 끊임없이 서술됨으로써 아이들에게 무의식적으로 각인될 만큼 심각한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 마비는 현재에도 그 치명적인 위력을 행사함으로써 과거에 형성된 무의식이 의식화 되는 과정을 촉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조이스가 교회와 종교와 성직자의 마비 증상을 소년의 무의식이 의식화 되는 과정을 통해 표현한 것은 종교와 아일랜드 교회가 마비되었고, 그 마비의 증상이 얼마나 심각했던가를 보여주기 위한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조이스는 아일랜드 사람들의 대다수가 신봉했던 가톨릭의 마비가 아일랜드 역사를 통해 끊임없이 그리고 심각할 정도로 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국민들을 속박하고 구속하였음을 주장하고, 그 종교의 마비된 실체를 강렬하게 비판하고자 했던 것이다.

(안동대)

인용문헌

- 사립, 마단. 『알기쉬운 자끄라깁』. 김해수 옮김. 서울: 백의, 1994.
- 홍덕선. 『조이스의 언어실험: 『자매들』의 ‘idle/idol’을 중심으로』. 『제임스 조이스 저널』 2 (1996): 5-18.
- Beck, Warren. *Joyce's Dubliners: Substance, Vision, and Art*. Durham: Duke UP, 1969.
- Bremen, Brian A. “‘He Was Too Scrupulous Always’: A Re-Examination of Joyce’s ‘The Sisters.’” *JJQ* 22 (1984): 55-66.
- Brunsdale, Mitzi. *James Joyce: A Study of the Short Fiction*. New York: Twayne Publishers, 1993.
- Corrington, John William. “The Sisters.” *Hart* 13-25.
- Eagleton, Terry. *Literary Theory: An Introduction*. Oxford: Basil Blackwell, 1983.
- Gifford, Don. *Joyce Annotated: Notes for Dubliners and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2nd ed. Berkeley & Los Angeles: U of California P, 1982.
- Hall, Calvin S. *A Primer of Freudian Psychology*. New York: World Publishing Co., 1963.
- Hart, Clive, ed. *James Joyce's Dubliners: Critical Essays*. London: Faber & Faber, 1969.
- Jacobi, Jolande. *The Psychology of C. G Jung*.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42.
- Joyce, James. *Dubliners*. Harmondsworth: Penguin Books, 2000.
- _____. *Stephen Hero*. New York: A New Direction Books, 1954.
- _____.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69.
- _____. *Ulysses: The Corrected Text*.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86.
- _____. *Selected Letters of James Joyce*. Ed. Richard Ellmann. London: Faber & Faber, 1975.
- _____. *The Critical Writings of James Joyce*. Ed. Ellsworth Mason and Richard Ellmann. London: Faber and Faber, 1959.

- Lemaire, Anika. *Jacques Lacan*. Trans. David Macey.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Ltd., 1977.
- Peake, C. H. *James Joyce: The Citizen and the Artist*. Stanford: Stanford UP, 1977.
- Senn, Fritz. "An Encounter." *Hart* 26-38.
- Tindall, William York. *A Reader's Guide to James Joyce*. New York: Noonday, 1959.
- Waisbren, Burton A., and Florence L. Walzl. "James Joyce's Symbolic Use of Syphilis in 'The Sisters.'" *Annals of Internal Medicine* 80 (1974): 758-62.
- Walzl, Florence L. "Dubliners: Women in Irish Society." *Women in Joyce*. Ed. Suzette Henke and Elaine Unkeless. Sussex: Harvester P, 1982. 31-56.
- Wohlpert, A James. "Laughing in the Confession-box: Vows of Silence in Joyce's 'The Sisters.'" *JJQ* 30 (1993): 409-18.

Abstract

The Conscientization of Unconsciousness in “The Sisters”

Sanghyo Kim

There is no doubt that one of the major themes of “The Sisters” is “paralysis.” In fact, many critics have tried to identify this same theme of the story from many perspectives; however, it seems very difficult or almost impossible for readers to understand the reality of paralysis naturally both at the level of the boy’s consciousness and within the context of the whole story. Therefore, I suggest that it is a more reasonable way to understand the theme of paralysis in the story by investigating it in the protagonist’s “unconsciousness” and its overt expression or “conscientization” in “The Sisters.”

In the first paragraph of the story, even though he is unaware of the word itself and its meaning consciously, “I [the boy] said softly to myself [himself] the word *paralysis*.” In the context of the story, there is no way to explain his murmuring the word *paralysis* to himself from the perspective of his consciousness. From an unconscious point of view, however, it could be argued that his actions make perfect sense. Throughout Irish history, the Catholic Church was commonly both morally and spiritually corrupt and paralysed.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boy’s unconsciousness about the paralysis of the Irish priests and Irish Catholic Church was formed during his childhood by hearing stories about the paralysis repeatedly from family members and neighbours. Later, this unconscious idea emerged into the sphere of his consciousness through association with the word *paralysis*, and, furthermore, due to the influences of his external environments, specifically, Father Flynn’s physical paralysis. His conscientized unconsciousness becomes concrete as he is exposed to both the priest’s death and the confused discourse among the adults. This aspect of conscientization of unconsciousness reveals itself again in his

dream and through his unconscious expression of emotion about the priest's paralysis in the street.

The paralysis of the Irish Catholic Church was exceedingly serious and has been repeated throughout Irish history to the extent that it dominated children's collective unconsciousness. Joyce used the conscientization of the boy's unconsciousness as a device to express the seriousness of this paralysis of the Irish priests and Irish Catholic Church of his day.

■ **Key words**: “The Sisters,” religion, paralysis, consciousness, unconsciousness, conscientization

(『자매들』, 종교, 마비, 의식, 무의식, 의식화)

논문접수: 2015년 5월 13일

논문심사: 2015년 6월 5일

게재확정: 2015년 6월 23일